점심 먹으려고 줄 서는 건 귀찮지만 겨울에는 더 심하다.

슬리퍼라 발도 시리지, 날씨는 춥지.

복도에서 콧물 훌쩍이면서 굶주리고 있으면 무슨 피난민이라도 된 기분이다.

그래서 나름 머리를 굴려서 2학년 식사 시간이 끝날쯤에 줄을 선 건데….

<<왁자지껄한 소리>>

설마 1학년 애들이 미리 나와 있을 줄이야.

줄도 그대로고 혼자 1학년 사이에 껴있으니 더 뻘쭘하기만 하잖아.

머쓱하게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다.

누구지?

푸욱.

고개를 돌린 순간, 누군가의 손가락이 볼을 찔렀다.

“선배, 안녕하세요~”

손가락으로 볼을 찔러놓고 안녕하냐고 묻는 채아람이 서 있었다.

채아람 “근데 선배. 1학년 줄에서 뭐 하세요?”

“점심 먹으러 늦게 나와서 줄 서 있어. 너도 점심 먹으려고?”

“네. 오늘 맛있는 거 나온다길래 친구들이랑 점심시간 시작하자마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

저번에 체육관에서 봤던 애들인 걸 보면 같은 반 친구들이려나.

친구 A “그런데 선배. 2학년이면 앞으로 가도 뭐라 안 할걸요?”

친구 B “쟤네 2학년 시간에 나온 거거든요.”

“내가 늦게 나오기도 했는데, 뭘. 조금 기다릴게.”

채아람 “야. 우리는 학생회거든? 새치기하면 선생님이랑 학생회장한테 혼나.”

친구 B “아, 그래? 학생회도 피곤하겠네요, 선배.”

나하곤 얼굴 한 번 본 사이인데도 채아람의 친구들은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다.

인싸들은 다들 이러는 걸까?

나는 모르는 사이여서 농구도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쩌면 그때 내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걸지도 모른다.

그래. 인싸들은 얼굴 한 번 본 사이끼리 친하게 얘기 나눌 정도인 걸지도 모른다.

채아람이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맞다. 너네 이번에 댄스 배틀 봄?”

“아, 그거? 여자 댄스팀끼리 대결하는 거? 봤지, 봤지!”

새로 나온 댄스팀 배틀에 대해 얘기하는 채아람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마음을 먹었다.

나도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보자...!!

마침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하는 얘기와 이어지면서, 서로 알고 있는 공통된 화제.

무거운 얘기도 아니니까 가볍게 얘기하기 좋은 이야기.

좋아. 그거면 되겠어.

잠깐 대화가 멈춘 최고의 타이밍.

나는 내가 생각한 가장 적절한 주제를 입에 담았다.

“춤이라 하니까 생각난 건데, 채아람 너 춤 잘 추지 않아?”

“......?”

“......?”

그리고 잠깐 정적이 찾아왔다.

친구 C “춤이요? 아람이가요?”

“자, 잠깐만요! 선배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뭐지? 이 반응?

“어? 저번에 봤는데 춤 엄청...”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채아람이 손으로 입을 막아버렸다.

“뭐라구요, 선배? 후배한테 점심밥 대신 빵 사준다구요?”

으읍!

“고마워요, 선배! 그렇게 됐으니까 오늘 점심은 난 따로 먹을게! 안녕!”

<<학생회실로 이동>>

[ 채아람에게 입을 막힌 채로 끌려온 곳은 학생회실이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채아람은 내 입에서 손을 뗐다. ]

“저기요, 선배!! 제가 춤추는 거 선배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미, 미안해! 혹시 비밀이었어?”

“그래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구요! 근데 선배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저번에 학생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다가 우연히 봤어.”

“학생회 끝나고...?”

“설마 선배. 제가 밤에 연습하는 거 본 거예요…?”

“...응.”

“으으으...!! 하필 그걸...”

“...미안. 일부러 본 건 아닌데, 집에 가는 길에 발소리가 들려서….”

“...어디까지 봤어요…?”

“마지막에 손 뻗으면서….”

“아악!! 끝까지 다 본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으으…. 하필 봐도 선배가.”

채아람이 소파에 풀썩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려버렸다.

“비밀로 하는 줄 몰라서...”

변명을 듣고는 채아람은 얼굴을 손에 더 깊게 파묻었다. 가린 손 사이로 새빨갛게 물든 채아람의 얼굴이 보였다.

우, 울고 있는 건가? 아니면 머리끝까지 화난 건가!?

뭐가 됐건 큰일이잖아! 어떡하지? 뭐, 뭐라도 말해야…!!

“그, 근데 있지! 나는 너 춤추는 거 되게 멋있었다?”

“......”

채아람은 아무 반응도 없었다.

아. 말하지 말걸.

자괴감에 내 얼굴도 빨개질 때쯤, 채아람이 손가락을 살짝 벌려서 눈만 빼꼼 내밀었다.

“.....다시 말해보세요.”

“응?”

“방금요. 선배가 얘기한 거요. 다시 말해보라구요.”

“춤추는 게 멋있다고 한 거?”

“...그거 정말이에요?”

“저, 정말이야! 내가 춤은 잘 모르지만 되게 멋있었어!”

“...어떤 점이요?”

“그, 그러니까...”

떠올려라 나…!! 내가 왜 채아람이 춤추는 걸 계속 봤는지.!!

춤동작이 멋있어서? 아니다. 채아람의 처음 보는 모습 때문에? 그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대 위인 것처럼 자신감이 넘친 점…?”

“.......”

아. 다른 거 말할걸.

“......선배.”

채아람이 천천히 손을 내렸다.

여전히 얼굴은 빨갰지만 그래도 화가 나거나, 슬퍼 보이진 않았다. 다행이다…

“방금 그거. 거짓말이면 저 진짜 화낼 거예요.”

“거짓말 아냐.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

“진짜 진짜 아니죠?”

“응. 진짜 진짜 아니야.”

“...그럼 한 번만 용서해줄게요.”

살짝 부루퉁한 표정으로 채아람은 소파에서 일어났다.

“대신 약속해요. 다른 사람한테 저 춤추는 거 절대로 말하지 않기.”

“약속할게. 누구한테도 말 안 해.”

“새끼손가락 걸고 해요.”

채아람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어서 나도 내 새끼손가락을 들었다.

“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모를 새끼손가락 약속을 하고는

“도장까지 꽉.”

서로 엄지를 맞붙여 도장까지 찍었다.

“이제 약속 깨면 선배 새끼손가락 뽑아갈 거예요.”

...새끼손가락 건다는 게 그런 뜻이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저 점심 못 먹었으니까 빵 사주세요.”

...

“치즈케이크 맛있다~!”

다행히 매점에서 빵을 살 때쯤엔 채아람은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앞으로는 입조심 해야지….